

## 벽과 마당의 건축, 그 또다른 시도

전봉희 /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Jeon Bong-Hee

나는 아직 나이 오십의 무거움을 알지 못한다. 때로 천재적 조속함을 가진 몇몇 작가들의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상상만으로 세월의 버거움을 지레짐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날 문득 옆자리를 비워버리는 동료의 뒷모습이 떠오르고, 20세기의 찬란한 세계가 온갖 오욕 속으로 저물어버릴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 것일까?

이 글은 물론 민현식의 건축 모두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그의 인생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치열함을 유일한 보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제의 작품과 내일의 작품이 몰역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곤란하다.

그는 1946년 경남 산청산이다. 건축을 제대로 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시설장교로 간 1970년 이후의 일로 보이고, 이후 공간을 거쳐 경력의 대부분을 원도시건축에서 보내다 독립하여 사무실을 가진 것은 불과 4년 남짓이 될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는, 이 4년이라는 기간이 세간의 평을 얻는데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립 국악중고등학교(1988/92-설계연도/준공연도, 이하 같음), (주)신도리코 기숙사(1991/93), 분당 주택전람회 단독/공동 주택(1993/?), 그리고 이제 선보이는 (주)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1994/96) 등이 이 중량감있는 신인의 프로필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가에게 족하다.

일년전 어느 봄날 아주 우연하게 그의 고향길에 동행할 기회를 가졌다. 몸도 마음도 축축 늘어지는 전형적인 늦봄의 오후였지만, 사연가지고 떠난 고향을 되짚어가는 길을 함께 하는 일은 몰래하는 소꿉장난과 같은 설렘도 있었다. 지리산의 동쪽, 남강의 상류인 경호강이 덕유산에서 시작하여 멀리 진주를 향하여 내어달리는 강변 마을 생초면 대포(大浦)리가 건축가의 텃자리이다. 바닷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운이 발달했을 만한 곳도 아닌데 큰 포구라는 이름을 가진 연유를 그는 이렇게 들려주었다. 먼 옛날 귀향길에 오른 선조와 그를 호송하던 형리가 서울이라 남해 천리길을 미쳐 다

가지 못하고 머물러 앉아, 그냥 이름만 대포리라.

굳이 건축가의 고향 이야기를 들추는 것은 그곳이 그의 건축과 무언가 닮아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경호강은 과연 경상도의 강답게 양 쪽으로 해발 일천미터를 넘나드는 높은 산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흘러내려간다. 거칠 것 없이 달리던 강줄기가 급하게 꺾이면서 만들어내는 조그만 충적지에 마을은 자리한다. 집 앞을 막아선 산. 입향의 비밀을 간직한 시선은 마을 옆의 조그만 문전옥답에 머물다 기어코는 멀리 강을 쫓는다. 건축가의 화두가 되어버린 '마당깊은 집'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벽과 비어있음(그에게 비어있음은 언제나 닫힌 공간의 비어있음이 지 열린 공간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과 좁게 열린 하늘과 그곳을 지나는 바람, 조각난 햇볕...

그의 건축에서 형태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벽의 건축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작품에서 모두 벽은 주요한 건축적 구성요소로 등장한다. 그에게 벽은 고향의 능선이 가지는 수평적인 선의 재현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첩첩한 산의 능선이 그러하듯 삶을 보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삶을 탈출하는 구실을 제공한다. '산 너머 남촌'은 대부분의 산골출신들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외부로의 동경이요 그리움이다. 닫혀있는 현실은 보다 열린 세상으로의 열망을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마구 달음박질 쳐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는 이들에게, 산을 넘어가는 구름떼나 어느날 갑자기 출현하는 제비들의 지저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는 강줄기는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그것은 화려한 도시의 불꽃이 될 수도 있고, 무지개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고장일 수도 있다. 미지는 꿈의 동의어가 아닌가.

그의 벽은 이런 식이다. 그 벽은 현실을 한정하는 벽이고, 미지의 세계를 꿈꾸게 하는 벽이다. 너만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구분하는 벽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기를 지키기위한 벽이기도 하다.

지금 소개되는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의 경우 두 개의 주요한 벽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는 전면의 외피를 이루며 휘어져 사라져가는 벽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건



전경

물의 등뼈를 구성하며 보다 육중하게 막아 선 벽이다. 전면의 벽이 각종의 개방으로 확장되어 있다. 여기서 벽은 대지 전면의 들판과 후면의 산기슭을 경계짓고, 공장과 농토가 뒤섞인 어수선했던 도시 변두리의 풍경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이상으로 두꺼워진 중심벽은 개발의 힘이 공룡처럼 국토를 헤집고 다니는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의 몸짓으로 보인다.

벽에 대한 집착은 기둥의 처리에서도 나타난다. 당연히 기둥이어야 할 자리는 벽의 파편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 벽의 파편들은 커다란 개구부를 내고 남은 창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벽의 형상을 온전하게 보전한다. 신도리코 본관에서 기둥은 전면벽의 개구부 뒷 편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기둥에 대하여 벽은 점에 대하여 선이, 그리고 선에 대하여 면이 가지는 것과 같은 차원적 우월성을 갖는다. 기둥이 독립적일 때 그것은 지점을 의미하고 수직성을 나타내고, 기둥이 줄지어 섰을 때 그것은 방향을 의미하고 연속을 나타낸다. 그러나 벽은 하나만으로 이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무엇보다 벽은, 기둥이 가지는 수직적 구축으로서의 오만함을 내비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건축 구법에 있어서도 기둥은 바닥을 밑에서 지지하고 벽은 바닥을 옆에서 지탱한다. 또 기둥의 단면은 원형을 근거하고, 벽의 단면은 사각형을 근거한다. 상부 벽을 구성하는 아치의 밑부분을 원주로 지지할 수 있는냐는 의문은 결국 르네상스기에 가서야 풀리는 문제였다. 벽은 벽 나름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그는 아직 많은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원주와 상부의 슬라브 면과의 결합부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즉, 벽기둥과 보의 외곽선을 기둥쪽으로 강조함으로써 기둥과 벽면의 만남을 해결했다. 신도리코 기숙사에서는 기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보다 쉽게 완전한 벽의 건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신 마당이 빠져있다.(앞으로 신관이 증축된다면 분명 마당이 생겨날 것이다) 그의 마당이 벽에 의한 에워싸임으로 온전하게 구축되는 것은 분당주택전람회의 출품작에서부터이다.

그리고 신도리코 본관에서는 마당과 벽에 다시 무언가가 덧붙여져 있다. 그 무언가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벽의 건축을 추구하는데는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기둥을 벽으로 위장함으로써 해결하였다. 필로티 기둥의 하부와 중앙브리지의 받침벽 하부를 교묘하게 편심을 두어 잘라냄으로써 그것들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벽을 절개하여 얻어진 것임을 강변한다. 벽의 순수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각종의 계단을 벽면으로부터 분리시킨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건물 중간의 공허부 상부에 있는 개구부로 언뜻 비치는 원주와 이것에 연결된 두 방향의 보는 건물 전체의 질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잘못 튀어나온 말실수로 보인다.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추구는 그의 작품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점이 많은 후배들에게 그가 가장 서울대 출신답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된다. 신도리코 본관의 경우 다른 작품들에서와는 다르게, 삼각형으로 잘라진 진입공간과 만곡된 벽면으로 인해 다소 복잡해진 외관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공간은 여전히 완벽할 정도의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두 개의 벽 사이의 온전한 공간에 주요기능을 담은 실들이 배치되고, 중심벽 뒤로 동선과 부속기능을 위한 실들이 켜를 이루며 달라붙어 있다. 또한 그 중심벽은 내부공간에서도 필요이상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반복됨으로써, 계획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길이 방향으로는, 두 벽이 평행하게 진행되는 좌측 부분에는 이 건물의 주 기능인 식당과 사무실이 각각 2개층씩을 점유하고 있고, 전면 벽이 곡면으로 휘어나가기 직전까지의 중간부분에 3층까지 뚫려있는 공허부와 4층의 옥상정원이 있다. 더욱이 이 공허부에 위치하는 진입 공간은 그가 다른 작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선과 삼각형이 사용되어 큰 변화를 보인다.

말하자면 신도리코 본관에 와서 덧붙여진 그 무언가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전면 벽이 중심 벽으로 휘어들어가 부정형을 이루는 우측 부분에는, 로비라운지와 소규모 도서실, 2, 3층을 차지하는 극장과 최상층의 중역실 및 회의실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실들의 3차원적인 형태는 극히 의도적으로 조절되어있다. 우선 공간의 운동에너지의 양에 따라 볼륨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무실이 1개층의 높이를 가지는데 반하여 식당과 극장은 2개층, 로비의 내외부는 3개층의 천장높이를 갖는다. 또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실과 식당이 직사각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는데 비하여 서서 어슬렁거리는 로비 내외부는 삼각형, 그리고 회의실, 극장 등의 중간적 성격의 실들은 한 면이 원호로 구성된 사다리꼴의 평면형을 갖는다.



식당

이와 같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마치 입체퍼즐을 보는 것과 같다. 각기 스스로의 공간적 요구사항들이 충족된 이후, 부분들은 그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전체의 구성요소가 된다. '일어날 모든 행위들의 합리적 분석과 통합공간의 경제적 배분, 그리고 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체계에 대한 의도 공간의 배열' (空間誌 9204)은 건축가의 작업에 일단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의도 공간은 기존의 S-공장과 사이에 만들어내는 '치극히 의도적인 좁고 긴' 마당과 '근사하게 만들어진' 중간의 공허부이다. 즉, 기존의 공장과 건축대지 사이에 있는 7.5m의 단차를 각각 건물의 정/후면 출입층으로 삼아 비교적 빠른 경사를 건물내부에서 흡수하였으며, 그 사이의 동선 및 시선 상의 흐름을 위하여 건물의 중간부에 공허부를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이나 학교와 같은 집합적 건물과 달리 마당을 만들기 곤란한 오피스건물에서 그는 예의 마당을 기존건물과의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 내었다.

설계의 다음 작업은 '설정된 각각 내·외 공간의 3차원적 크기·형태 및 비례, 거기에 쏟아지는 햇빛, 거기를 통하여 지나갈 바람, 그리고 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채' (空間誌 9204)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란한 두 개의 벽 사이에 있는 주요공간은 '세밀하게 치수를 조절한' 뒷마당과 같은 폭과 층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사무실에 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오는 사람 모두에게 뒷마당은 단지 하늘이 터져있는 또 하나의 내부공간이 된다. 후면의 출입구를 통한 방문자가 식당에서 무언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다.

이런 식의 대칭적인 내/외부 공간의 사용은 진입공간에서 극대화된다. 중간 공허부에서 폭포 등으로 이루어진 물의 공간을 제외하면, 거의 정사각형을 이루는 진입공간은 그 대각선상을 가로지르는 유리벽에 의하여 한 쌍의 삼각형의 내/외부 공간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 삼각형은, 외부에서는 미러글래스에 비친 반영으로, 내부에서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투영으로 온전한 사각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작은 조그맣게 돌출된 방풍실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한 쌍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사각형 안에서 유리벽은 내외부 공간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을 겨우 버티고 있는 삼투압 막과 같이 얹어져 있다.

건축가가 가장 공을 들인 곳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건축주로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였을, 그리고 두고두고 건축가들 사이에 말이 많을 것이 분명한 곳이 중간 공허부의 왼쪽에 자리한 폭포와 연못의 공간이다. 진입부와는 경계없이 이어지는 공간이지만, 전후면의 기둥 간격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건물 후면이 바로 지면과 만나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선큰정원으로 후면을 지면에서 띄어버림으로써 이부분의 개방성은 극대화 된다. 그가 의도한 '바람'은 여기에 있다. 또한 4층에 설치된 고급사무원을 위한 옥상 휴식공간이 이 공허부의 천장을 형성하며, 복도와

만나는 안쪽을 가로로 조금 뚫어 천창을 만들었다. 역시 그가 말하는 '조절된 햇빛'을 위한 장치이다. 전면의, 폭이 깊고 대격자로 잘려진 그리드와 후면의, 보다 규칙적이고 소격자로 나뉘어진 그리드는, 이 공허부가 도시적 스케일과 인간적 스케일을 연결하는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정면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건물 몸체전부를 날려버린 깊은 어둠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긴 매스를 정리하는 시각적 초점이 되고, 후면의 깊은 뒷마당에서는 그리드 사이로 언뜻 언뜻 푸른 들이 내려다 보이는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 공간은 전통공간의 루하 진입 공간과도 같이 보인다. 가파른 숲 속을 걷다 순간 마주치는 정면을 막아서는 당당한 루, 그리고 그 하부를 지나면서 발걸음마다 달라지는 안쪽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루하 진입의 극적인 공간 전개방식이라면, 이 공허부는 사뭇 다르다. 공허부를 올라가 마주 대하는 뒷마당은 말그대로 뒷마당이지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계도 아니요, 이 공장의 중심공간으로 이해되기에 부족하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뒷마당의 개수공사가 끝나면 느낌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동선이나, 방문자의 진입 동선을 고려할 때, 건축가가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건 간에 이 공간이 웅변으로 요구하고 있는, 폭포 옆의 계단을 올라 선큰정원의 계단을 이용하여 뒷마당으로 오르는 통로는 그다지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공허부는 다만 원거리에서의 시선을 의식한 형태적 분절과 근거리에서의 시선을 위한 공간적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정당할 것



피로티



전경

이다. 그러나 작은 베이가 세 개나 사용된 이 공간의 대부분은 다소 어정쩡한 폭포를 위하여 할애되어 있고, 그나마 항상 폭포의 물살을 틀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측 못했을까. 즉, 폭포는 세 베이, 3층의 보와 기둥이 만들어내는 9개의 격자 속으로 매몰됨으로써, 의도하였던 수직적 흐름도 시각적 초점도 그리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장소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들판을 내다보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공간은 아니다. 백화점 입구의 거대한 샹델리아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현식의 건축에서 아직 과도함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식당이 갖는 완벽한 입방체의 규격과 진입공간이 주는 안팎의 팽팽한 긴장감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다. 그도 이제는 산청을 떠났는가? 오히려 그의 '마당깊은 집'은 2층으로 올라가 마주 대하는 작은 선긋된 정원에서 발견된다. 하얀 돌이 깔린 이 좁고 긴 정원은 3층 레벨의 뒷마당으로 나가는 옥외계단과, 2층의 카페테리아 등과 연결된 옥외 휴식공간의 기능을 갖는다. 아직 화분 속에 담겨있는 담쟁이덩쿨은 이제 곧 무성하게 자라 지상과의 경계를 이루는 벽면을 뒤덮을 것이고, 그리하여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고단한 직장생활의 틈틈히 좁게 뚫린 하늘만큼의 희망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은 몇가지 점에서 민현식의 건축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벽의 사용에 있어 보다 능란한 기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처음으로 유리벽이 막과 같이 사용되었고, 크게 털어낸 개구부에 금속차양을 설치한 반투명적 벽을 만들어내었다. 이제까지 즐겨 사용해오던 콘크리트에 의한 다소 육중한 벽에 대하여 보다 가벼운 두 종류의 벽을 시도하였고,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벽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건축가는 이전의 작품에서 벽면, 필로티, 주간을 가들 매우는 창 등으로 표현하였던 얽음의 의미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좁고 길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의 전형적인 마당 외에 확장기의 단면과 같이 뽕뽕하게 퍼져나가는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낸 점이다. 이것이 향후 그의 건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나갈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발달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지만, 최소한 건축적 공간의 다양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세 번째는 학교, 기숙사,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건축에서도 벽과 마당이라는 그의 도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준 점이다.

한 때, 그의 벽과 마당은 그 지나친 엄숙성과 소규모적인 분절 때문에, 주택가 같은 장기지속적 일상 건축에서만 가능하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제 그는 새로운 벽과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냄으로써, 벽과 마당의 건축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한편 건축가는 이 건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숙제를 떠안은 것으로도 보인다. 중간 공허부에서 보이는 생기 있는 공간적 활력소를 그의 엄숙주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뒷마당의 경계를 이루는 미러글래스와 같은 매끈한 벽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결국은, 이제 산청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혀버린 것으로 보이는 건축가는 과연 어디에 고향을 만들 것인지. 설레임을 가지고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